



에너지 드링크, 약인가 독인가

베이스볼 플러스

| 그라운드 불어닥친 '에너지 사체'

순간 집중력 높이기 위해 선수들 쉽게 이용
일부선수 호흡 곤란·울렁거림 증세 등 호소
“금지 약물 아니지만 선수들 복용 의도 위험”

일명 '에너지 사체'로 알려진 에너지 드링크가 야구선수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 수험생이나 밤 새워 일하는 사람들이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드링크를 애용하는 것은 순간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력은 그대로인데 카페인으로 정신력을 끌어올리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순간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야구 선수에게 에너지 드링크는 양날의 칼이다. 효험은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 드링크와

다복용으로 인한 사고들이 프로야구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 사례

얼마 전 지방 A구단의 B선수가 경기 초반 갑자기 교체된 일이 있었다. 구단에선 교제사유를 달리 알렸지만, 에너지 드링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드링크의 효능보다 맛 자체가 좋아서 즐겨 마시던 B선수는 이날도 별 생각 없이 몇 캔이나 들이켰는데 경기 도중 울렁거리는 증세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로 A구단에선 감독의 지시로 에너지 드링크 복용 금지령이 떨어졌다. 또 불펜투수인 C는 강판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잠시나마 구단을 깜짝 놀라게 했다. 체질, 날씨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에너지 드링크도 원인일 수 있었다. C선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만 마셔야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드링크와 도핑

그러나 야구선수들에게 집중력은 ‘약마에

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힘이다. 지방 D구단과 수도권 E구단은 아예 드러내놓고 에너지 드링크를 복용한다. 부작용보다 효능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약물에 정통한 야구계 관계자는 1일 “에너지 드링크는 도핑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 자체가 금지약물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선수들의 목적은 도핑 정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분 자체는 괜찮아도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특정약물을 집중적으로 복용하는 의도는 위법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선수가 “(도핑을 목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적이 없다”고 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각성효과가 있는 카페인의 함에 의존해 경기력을 높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내야구계도 느껴야 될 때가 온 것 또한 현실인 듯하다.

사지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 matsr121

초대받지 못한 'LA다저스 영웅' 박찬호

■통신원수첩

지난달 26일(한국시간)부터 29일까지 열린 신시내티 레즈-LA 다저스의 4연전 당시 다저스타디움을 찾은 한인 동포는 2만5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다저스 류현진과 레즈 추신수의 맞대결이 펼쳐진 28일 경기 때는 마치 잠실구장을 LA로 옮겨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다음 날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선 소녀시대의 태연이 애국가를, 티파니가 미국 국가를 불렀다. 써니는 시구를 맡았다. 지역만리 타국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주말이었다.

이런 뜻 깊은 행사에서 아쉽게도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 박찬호는 미국에 있었다. '한국의 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관광공사 측은 박찬호에게 시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호는 1994년 다저스에 입단해 2001년까지 주축 선발투수로 맹활약했다. 이후 텍사스 레인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뉴욕 메츠를 거쳐 2008년 다저스로 돌아와 1년간 불펜투수로 뛰었다. 다저스에서 몸담은 9년간 84승이나 따냈다. 개인통산 124승의 68%에 달한다. 2001년에는 올스타로 뽑히기도 했다. 고국을 떠나 LA에서 밤낮으로 일하느라 야구구경을 할 겨를이 없던 동포들에게 다저스는 어느덧 홈팀이 됐다. 그 일등공신이 박찬호였다.

박찬호 하면 늘 떠오르는 인물이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다. 1995년 다저스에서 신인왕을 차지한 노모는 1998시즌 도중 메츠로 트레이드됐다. 그리고 2002년 캄백해 2004년까지 총 6년 반을 다저스에 몸담았다. 노히트노런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노모가 다저스에서 따낸 승수는 박찬호보다 3승이 적은 81승이다. 다저스 구단은 8월 11일을 '노모 히데오 버블 헤드의 날'로 정했다. 올해가 벌써 2번째다. 그러나 다저스 구단은 박찬호의 버블헤드를 나눠줄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 뭘지 모를 어긋난 관계가 다저스와 박찬호 사이에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한국의 TV예능프로그램 '무릎파도사'에 출연한 박찬호는 자신을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첫 번



LA 다저스는 7월 29일(한국시간) 홈경기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박찬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의 잔치날, 박찬호가 한인 팬들과 교류했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박찬호가 7월 8일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투구 동작을 취하고 있다. 뉴스시스

째 에이전트 스티브 김을 줄곧 '하숙집 아저씨'라고 표현했다. 오락프로그램이기에 재미를 위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호형호제하던 사이였음을 생각하면 귀에 거슬렸다.

게다가 박찬호는 부상으로 부진의 늪에서 헤매던 텍사스 시절 자신에게 '떡튀'라는 표현을 쓴 한국 특파원들에 대해 '배신'이라는 과격한 단어를 쓰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평소 형-동생 처럼 지내던 사이였기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 10년도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꺼내는 것을 보면 그의 '뒤끝'이 참 짙진 듯하다. 거꾸로 특파원들이 기자의 직분을 놀려가며 때론 통역으로, 때론 로드매니저로, 그리고 대부분은 말동무로 그의 고독한 빅리그 생활을 달래줬던 사실을 상기하면 표현상의 문제를 '배신'이라는 어마어마한 낱말로 규정짓는 박찬호야말로 주변 사람 모두를 배신한 꼴은 아닌지 싶다.

박찬호는 2차례나 LA를 떠나면서도 단 한번도 한인 팬들과 커뮤니티에 대해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사일 노날이 LA 레이커스에서 트레이드됐을 때 LA타임스에 대문짝만 하게 전면광고를 내서 'LA 팬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씁쓸하다.

다저스타디움이 한국인의 잔치집이 된 지난 주말 다른 사람이 아닌 박찬호가 얼굴을 보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인 팬들과 교류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었을까. 어쩌면 박찬호는 미처 인사를 챙기지 못한 동포들을 보기가 민망하고 미안해서 몸을 감춘 것이었을까.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발목 통증 추신수, 시즌 5번째 결장

추신수(31·신시내티)가 발목 통증 때문에 1일(한국시간) 팻코파크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와의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올 시즌 5번째 결장이다.

추신수는 지난달 29일 LA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 8회 대타로 나서서 사구로 출루한 뒤 2루 도루 과정에서 왼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이날 샌디에이고전에 결장했고, 31일에는 수비부담이 적은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추신수는 1일 MLB.com과의 인

터뷰에서 “발목 상태는 많이 나아졌다”며 “오늘은 쉬고 내일(2일)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시내티는 이날 샌디에이고를 4-1로 제압하고 5연패에서 탈출했다. 60승째(49패)를 거둔 신시내티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1위 피츠버그(65승42패)에 6게임차, 2위 세인트루이스(62승44패)에 3.5게임차로 뒤진 3위를 유지했다. 신시내티는 2일 하루를 쉬고 3일부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세인트루이스와 3연전을 펼친다. 전영희 기자 selupman@donga.com 트위터@selupman11

지암비, 최고령 끝내기홈런... “이 맛에 은퇴 못해”

ML 인사이트

| 클리블랜드 백전노장 지암비

9회 대타 스리런...42세 노장의 희춘포
뱅크 에론·토니 페레스 대기록 넘어서
작년 5월20일 생애 첫 환경기 3개 홈런도

7월 30일(한국시간) 프로그레시브필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맞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8회까지 고차 3안타에 그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2-2로 동점인 가운데 인디언스의 9회말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자, 테리 프랑코나 감독은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른손타자 마크 레이놀즈를 빼고 42세의 노장 제이슨 지암비를 대타로 내세웠다.

볼 카운트 1B-1S서 좌타자 지암비는 화이트삭스 우완 불펜투수 라론 트론코소의 백더어 슬라이더를 건어 올려 외야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겨 버려 홈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개인통산 9번째 끝내기홈런을 터뜨린 지암비의 한방으로 인디언스는 5연승의 쿠포를 부르며 지구 1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2.5경기차로 추격할 수 있었

다. 3루를 돌아 홈에서 동료들과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지암비는 “이 맛을 잊지 못해 은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동료들과 함께 서로 끌어안고 축하해주는 것만큼 짜릿한 순간은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지암비의 홈런은 메이저리거 역사상 최고령 끝내기홈런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42세 202일이었던 지암비가 1976년 댕크 에런이 수립한 종전 기록(42세 157일)을 바꿔놓은 것이다. 42세가 넘는 선수가 끝내기홈런을 터뜨린 것은 지암비와 에론 외에 1984년 토니 페레스(42세 110일)까지 3명뿐이다.

지금까지 지암비가 쏘아 올린 홈런은 모두 436개로 역대 40위에 해당한다. 현역 선수로는 5위 알렉스 로드리게스(647홈런·뉴욕 양키스), 14위 매니 라미레스(555홈런), 28위 엘버트 푸홀스(492홈런·LA 에인절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야치를 그렸다. 또 끝내기홈런 부문에선 메이저리거 역대 공동 15위로 올라섰다. 1위는 지난해 은퇴한 짐 토미로 13개의 끝내기홈런을 작렬했다. 현역 선수 가운데 지암비보다 더 많은 끝내기 홈런을 날린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이비드 오티스(107개)가 유일하다.

지암비는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활약하던 지난 시즌에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5월 20일 필

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생애 처음 3개의 홈런을 폭발시켜 1962년 스탠 뮤지얼이 작성한 최고령 경기 3홈런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지암비는 로키스의 감독 후보로 강력히 거론됐지만, 윌트 와이스에게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은퇴하고 타격코치를 맡아달라는 로키스 구단의 제안을 거절한 채 인디언스와 계약하고 선수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1971년 1월 8일 LA 인근 웨스트 코비나에서 태어난 지암비는 올 시즌 2할 안팎의 타율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7개의 홈런과 6개의 2루타로 안타의 절반 이상을 장타로 장식해 전문대타요원으로 프랑코나 감독의 신임을 사고 있다.

오를랜드 어슬레틱스 시절이던 2000년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지암비는 올스타에도 5차례나 선정됐다. 아메리칸리그에서 최다 볼넷 4차례, 출루율 1위 3차례, 최다 2루타 1차례, 장타율 1위 1차례씩을 기록했으며 실버슬러거상도 2번 수상했다. 그러나 2003년 '발코 스캔들'에 연루돼 약물복용 사실이 공개되면서 홈역을 잃었다. 양키스 시절이던 2005년 32홈런을 터뜨림으로써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뛰어난 파워를 과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지암비의 마지막 꿈은 월드시리즈 우승이다. 어슬레틱스와 양키스에서 활약하던 1995년부터



클리블랜드 제이슨 지암비(뒤)가 7월 30일(한국시간)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2-2로 맞선 9회말 대타로 출전해 개인통산 9번째 끝내기홈런을 터뜨린 뒤 닉 스위셔(33번)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클리블랜드 미 오하이오주 | AP/뉴스시스

2008년까지 수차례 포스트시즌 무대에 섰지만, 단 한 개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도 가지 못했다. 양키스는 지암비가 떠난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구단 통산 27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지암비의 현 소속팀 인디언스는 1948년 이후 우

승 가문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42세의 노장 지암비가 인디언스를 우승으로 이끌며 선수생활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편집 | 심승수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sms23